

일을 통한 성취감에서 존재감 획득

- 업무가 인간관계에 우선.
- 결과 지향적, 과제 중심적.
- 유능함, 일에 대한 본인의 스타일이 분명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이 강함.
- 키워드 : 배려, 순응, 모범
- 일이든 취미든 강박적으로 집착.

에이전트인 당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능합니다. 당신은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일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일입니다. 많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해내는 것에 대해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일밖에 모르고 일을 통한 성취감에서 존재감을 획득하는 당신은 직장 내에서도 인간관계보다 업무를 우선시합니다. 주어진 과제를 확실히 수행해야 두 발 뻗고 자는, 책임감으로 푹푹 뭉친 성격입니다.

에이전트인 당신은 항상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주어진 과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하게 완수하고, 결과물의 우수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당신에게 유능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를 마치고 출력할 때 가장 만족감을 느낍니다. 간섭을 싫어하는 당신은 일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당신은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아 차갑고 과제중심적인 인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추진력을 발휘하다 보면 독선적이라는 평가도 듣습니다. 에이전트인 당신은 동료나 친구로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엄격하다 보니 타인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 대기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인 당신은 나태한 부하를 두고 보지 못합니다. 일에 목숨을 거는 당신은 내공이 있는 선수끼리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에이전트인 당신은 변화가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느 정도 프레임이 정해진 상황에서 자기 나름의 스타일대로 수행하는 상황을 좋아할 뿐, 프레임을 짜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려 놓은 판이 바뀌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당신은 계획이 바뀔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방향이나 비전에 대해 공유하고 공감하는 리더가 아니라면 에이전트인 당신 과 함께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당신 스타일대로 일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에이전트로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업무 계획이 자주 수정되면 당신은 일을 놓아버리고 완전히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취미 생활을 할 때에도 전문가 뺨칠 정도로 몰두합니다. 에이전트인 당신에게 취미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취미가 프라모델 조립이라면 몇 시에 집에 들어가든 반드시 두세 시간씩 건담을 조립하고서야 잠이 듭니다. 에이전트인 당신은 인간관계에서도 성실, 그 자체입니다. 때로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타인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건 나쁜 감정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기보다는 표현 방식이 무디고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트의 경우, 일을 하듯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든 취미 생활이든 뭐든 강박적으로 하고, 일단 꽂히면 오타쿠 성향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에이전트로서 일이나 과제를 인간보다 우선시하는 것뿐입니다.

에이전트로서 컬처가 바닥이라면 당신은 지금 '꺾인 날개' 상황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일하는 조직이나 인간관계에서 에이전트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잘 날아가던 새가 추락한 상황과 같습니다. 분명히 과거에는 업무를 잘 수행하고 능력도 인정받았지만 이제 더 이상 조직에서 잘 나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능력이 모자라서라기보다 당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날개가 꺾인 당신은 스스로 쓸모 없다고 느끼거나 떠나야 할지 모른다고 느낍니다. 동시에 막연히 '세상이 돌아가라, 나는 나대로 살려다'라는 식으로 관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마음껏 날고 싶지만 날개가 꺾인 당신은, 당신에게 뭐라고 하는 인간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버르기도 하고, 반대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참고 견딜 거야.' 하는 수동 공격적인 성향도 보입니다. 꺾인 날개 상태인 당신을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무엇을 강제하거나 간섭하기라도 하면, 엄청 난 고문처럼 받아들입니다. 남이 시키는 일을 거부하면서 현재 당신이 처한 상황을 그저 유지하겠다는 '배째라' 심리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